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9년 10월 4일(금)

...(음력 9월6일)...

Пятница

4 октября 2019г.

№ 39(116856)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10월 5일은 세계 교사의 날이다.

▲ 유즈노사할린스크 제2 김나지아 2학년<베>반의 김산희 담임교사는 27년간 교직에 종사하고 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제3중학교를 졸업한 그는 대학을 졸업 후 모교로 돌아와 16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했다. 제2김나지아에서 김 교사는 11년을 근무해 수준 높은 교사로 인정받아 시교육관리국의 표창장, 작년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두마 교육상을 수상한 바 있다. 동료, 학생, 학부모의 존경을 받아 <인포우로크(정보수업)>사이트에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취재: 이예식 기자)

'세계 교사의 날' 축하문

존경하는 교육 분야의 종사자와 교사 여러분!

세계 교사의 날을 맞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일생 통해 바치시는 일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직업 중 하나입니다. 이 직업은 폭넓은 지식과 크나큰 인내와 또한 학생들을 향한 진심어린 사랑을 요합니다. 사할린의 교사들은 이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으며 사할린의 한 세대만이 아니라 수많은 주민들이 여러분에게서 교육과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와 국가 교육의 좋은 전통을 중시하고, 새로운 현대적 교육에 대한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할린주 정부는 여러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사할린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을 꼭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강건함과 번영과 업무에 새로운 성취를 기원합니다.

사할린 주지사 알레리 리마렌코

올림픽 챔피언들을 사할린 방문

10월 2일부터 13일까지 <'위대한 러시아. 스포츠 강국'컵> 챔피언들의 지역 원정이 사할린에서 진행된다.

러시아의 자선 프로그램 <올림픽의 전설은 러시아의 아이들과 청년이다>의 대표와 스포츠계 스타들, 원로 스포츠 영웅들이 사할린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들은 '조국의 영웅' 지역 간 원로 공동위원회 회장 나탈라 보야르스카야, 올림픽 조정 · 요트 경기 챔피언,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세계 챔피언 2관왕, 세계 선수권 은메달리스트 3관왕, 소련 챔피언 12관, 러시아 영광의 스포츠 장인 니나 트로피모바, 올림픽 배구 챔피언, 세계 선수권 2관왕, 월드컵 우승자, 유럽 챔피언, 소련 챔피언 2관왕, 소련 컵 우승자, 존경받는 러시아 스포츠 장인 류드밀라 쥐길리 등을 비롯한 많은 스포츠 영웅들이 러시아 전국 52개 지역, 380개 시와 마을에서 섭외되어 온다. 영광스런 스포츠 장인들의 원정은 <러시아. 스포츠와 아이들>스포츠 축제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이는 <올림픽의 전설은 러시아의 아이들과 청년들이다> 자선 프로그램의 대규모 사회적 주요 기획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유 · 청소년들을 위한 대규모 스포츠의 발전과 지역 공동체의 스포츠 활동 장려, 스포츠와 체육 문화 조성,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증진, 아동들의 정기적 스포츠 활동에의 참여, 지역 아동 스포츠의 지원을 위해 <스포츠 진흥> 전 러시아 포럼을 준비하는 데 있다. 스포츠 스타들은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네고르스크, 크라스노고르스크, 우글레고르스크, 샤호조르스크, 스미르니흐, 포로나이스크, 마카로브, 트로이츠코예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기성세대의 스포츠 스타들과 챔피언, 올림픽 경기 수상자들은 중등교육기관의 학생들, 유청소년 스포츠인들, 유청소년 체육학교 교사와 강사, 청년 활동으로 시 중심에 청년 기획 참가자들과 만날 계획이다.

(주정부 홍보실 자료에서)

단신

사할린, 제5회 <기적의 섬들에서> 세계인형극축제 개최

10월 6일부터 16일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제5회 <기적의 섬들에서>국제인형극장축제가 인도적 목적을 가지고 개최된다. 올해 10일간 진행되는 이 축제에는 세계 10개국(아르헨티나, 프랑스, 터키, 스페인, 조지아, 이란, 루마니아, 몰도바, 벨라루시, 러시아)의 27개 인형극단이 사할린 무대에 서게 된다. 축제 개막식은 6일 <고르니 위스두흐>스키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본격적인 인형극 공연은 사할린 인형극장에서만 아니라 처음으로 가가린시공원 노천 무대에서도 펼쳐진다고 사할린인형극장 안토니나 도브로류보와 예술 감독이 전했다. 축제 기간 동안 아동들을 위한 공연을 비롯해 청소년, 성인 등을 위한 다양한 무대가 펼쳐진다.

사할린주, 고령 세대를 기리다

10월 1일(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체호프 센터에서 국제 노인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다. 전쟁 및 노동계의 원로들, 연금자, 지역 산업 종사자 등 기념식에 초대된 손님은 500여 명이였다.

사할린주 정부 안톤 자이체브 부수상이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 명의로 이날 행사 참가자들을 환영했다. "오늘날 고령자들의 삶의 수준과 질적 향상은 주정부의 사회 정책 주요 목표중 하나입니다. 매년 사회 지원금 규모를 늘리며, 새로운 사회 지원책을 실시하고,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빈곤 감소에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사할린 주에는 16만 명 이상의 <실버세대(노인)> 시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 대책은 60여 가지가 넘습니다."라고 부수상이 연설했다. 이날 유즈노사할린스크 및 쿠릴 대주교 아크시도 참가자들을 축원했으며 아버지와 어머니, 모든 노인 공경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행사 손님들은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예술 단체들의 공연도 관람하였다.

사할린 주민 3천여 명 감기에 걸려

러시아 소비자권리 감독청은 7일간의 발병에 대한 총 결과를 보고했다. 지난 일주일간 사할린과 쿠릴 열도에서는 급성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2853건이 기록되어 7일만에 발병률이 10.3% 증가했다.

소비자권리감독청 지역 관할부에 따르면 발병 대상은 대부분이 3세-6세, 7세-14세의 어린이와 학생들이다. 9월23일부터 29일까지 급성장염 사례는 163건으로 이 중 17세 이하의 어린이와 학생들이 92건 그중 24건은 유치원생들에게서 발병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 대비 현재 주내 감염율은 16.4%로 증가되었다. 주에서는 지속적으로 엔트로바이러스 감염 사실이 기록되고 있는 가운데 일주일 만에 28명이 감염되었고 이 중 대부분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발병하여 14세이하 아동이 22건으로 기록되었다.

새고려신문

2020년 상반기 신문주문 시작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0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시작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6개월 구독료는 570루블리 90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본사 편집부)



10월 5일은 세계 교사의 날

박 리지아: 교직은 천직

졸업식을 앞두고 담임 선생은 초등1학년 때 리지아가 쓴 작문을 건네주면서 '적혀 있는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10월 5일은 세계 교사의 날이다. 이날을 앞두고 유즈노사할린스크 제1김나지아를 찾았다. 본교 보꾸 탈라 안드레예브나(박성옥) 교장의 추천으로 박 리지아 유리예브나(본이름 박 리지아 호추노브나) 초등학교 교사를 본지에 소개하기로 했다.

인사를 반갑게 한 40대 초반의 리지아 교사는 학교 교장의 부탁으로 우선 올해 새로 증축된 초등학교 건물로 안내해주었다. 학교 본채를 이어 짓게 된 이 3층의 건물은 정말 새로운 학교의 면모를 갖추었다. 그 전에는 별관 건물을 초등학교 건물로 사용해 시설도 낡고 공간이 많이 부족했었는데 새 건물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공부도 잘 하고, 잘 놀고 쉬며 다양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공간과 최신 장비와 시설을 잘 갖추고 있었다. 학교를 견학하면서 학생들이 부럽기까지 했다.

푸쉬킨 명칭 제1 김나지아는 다양한 교육 방식의 혁신적인 학교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인문 과목에 집중해 깊이 있는 교육을 하고 있다. 이 학교에서는 2학년부턴 영어를, 3학년부턴는 로봇공학을, 5학년부턴는 제2외국어로 프랑스어 또는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다. 김나지아의 초등학교 교실들을 안내하면서 리지아 선생은 전통적 교육만이 아니라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

한다고 재삼 설명했다.

리지아 선생은 김나지아에서 일한 지 5년이 되었다. 지난 5월 말에 1학년부턴 가르치던 학생들이 초등학교과정 (4학년까지)을 수료하게 되었다. 그래서 9월에 시작한 학기에는 1학년 <아> 반을 맡게 되었다. 이제 막 학교에 들어온 지 겨우 한 달 된 아이들이다.

"어떤 아이들은 학교에 공부하러 왔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지만, 어떤 아이들은 학교가 뭔지, 왜 여기에 보내졌는지 아직도 모르는 학생도 있다. 현재 적응하는 시기"라고 리지아 선생이 얘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교사라는 직업이 마음에 들고 재미있다고 한다. 교직이 천직이었을까,

그는 초등학교 1학년부턴 꿈을 키워왔다고 한다. 초등학교시절 첫 선생님을 보고 학교 교사가 되고 싶었다고 했다. 보통 어린 시절 직업에 대한 꿈은 매번 바뀌기도 하고 학교를 졸업하는 무렵에는 아예 어떤 전공을 해야 할지 모르기도 하는데. 리지아 선생은 한 때 교사가 될지, 요리사가 될지 조금 고민을 하기도 했으며 그런 중에 주위 사람들이 '너예겐 교직이 맞는 것 같다'라고 하기도 했고 게다가 졸업식을 앞두고 담임 선생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리지아가 쓴 작문을 건네주면서 '적혀 있는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한다. 작문에는 선생이 되고 싶



다는 소원이 적혀 있었다고 했다.

이렇게 유즈노사할린스크 제11중학교를 졸업하고 그는 사할린사범전문학교 초등학교 교사를 전공했다. 졸업 후에는 제15중학교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그 당시엔 제대로 교직에 대한 사명이나 참맛을 맛보지 못했다고 한다. 결혼하고는 딸을 낳아 육아에 전념했다. 제15학교가 폐교되어 그는 제14중학교에서 본격적인 교직의 경험을 쌓으며 학교에서 10년간 근무했다. 사실 이 학교의 주변 동네가 별로 안전한 곳은 아니었고 비교적 학생수도 적었고, 대다수 학생들의 가정 사정도 별로 좋지 않았다. 그래도 리지아 유리예브나 선생은 학교에서의 입지는 좋은 선생으로 인정을 받았다.

실력 있는 교사로 인정받아 김나지아에 취직한 것도 사실이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 김나지아에 왔을 때 좀 힘



들었어요. 1학년생들을 바로 가르치게 되었는데 이들에게도 적응시간이 필요했고 저도 이 학교가 많이 낯설었거든요. 적응 중이었어요. 더군다나 전통적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새롭고 개성적인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했습니다."라고 박 선생이 설명했다.

교육에는 초기 기초가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 견해에 따라서 학부모들도 자녀들이 1학년에 입학할 때면 교사의 능력을 저울질해 따지는 것도 과언은 아니다.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교사를 찾아야 한다"는 말처럼 그는 아이, 부모, 교사가 함께 움직이고 셋이 호흡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그래야 학생이 올바르게 자랄수 있고 공부와 노력하는 법을 배울 수 있으며 효과도 있다고 본다.

교사로서 리지아 유리예브나는 자질 향상을 위해 늘 노력 중이다. 첫 직업교육은 전문학교에서 그 다음

사할린국립대 초등학교 교육과(통신으로), 그 다음에는 교육자들을 위한 다양한 연수과정 이수, 3년 전에는 모스크바에서 지금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 또한 본인보다 김나지아에서 더 오랜 교육 경력을 가진 동료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한다.

"김나지아 초등학교 교사는 정말 화목하게 한 마음으로 활약하고 서로 많이 도우며 교육 경험도 공유하고 큰 행사를 항상 함께 준비합니다."라며 리지아 선생이 동료들을 칭찬했다.

첫 4년간은 그는 초등학교 교사로 담임한 반에서만 학생들을 가르쳤다. 원래 러시아 학교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은 자기 반에서 모든 과목을 가르치게 돼 있는데

올해 부턴는 과목별 교육을 다시 도입했다. 전에 김나지아에서 그런 제도가 있었지만 최근에 들어 그걸 실행하지 않다가 올해부턴는 다시 시작했다고 한다. 박 선생은 모든 1학년생 반에서 수학, 미술, 그리고 기술을 가르치기로 했다.

각 반에는 34명이 공부하고 있다. 학생이 꽤 많은 편이다. 그런 1학년 반이 4반이라 한다. 그 외에 방과후 활동으로 그는 2학년생들에게 <즐거운 기하학>을 가르치고 있다.

1학년생들은 매주 방과후 활동으로 상담교사와 <생활의 기능>, 다른 선생들과는 <웅변>, <수수께끼의 세계>, <마법의 손가락들>이란 수업을 갖는다.

또한 박 선생은 부모와 합의해서 견학을 많이 한다. 시내 투어, 산업시찰, 박물관 견학 등. 호기심이 많은 어린이들에게 시야를 넓히는 활동이다.

리지아 선생은 학생과 교사 사이는 꼭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믿음직한 선생이라 아이들은 그에게 자기 크고 작은 비밀을 자주 이야기한다.

교사로 활동한 지 17여년, 그 동안 많은 학생 가르치기도 하고, 여러 것에 도전하기도 했다. 변함없는 것은 하나다. 교직을 잘 선택했다는 것. 지치지 않고 재미있게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리지아 선생은 말한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기사 정정

지난주 본지 2019년 9월 27일 호의 '사할린 한인 강제동원 80주년 기념 세미나'기사 교정 중 오류를 정정합니다.

한국 공관의 김용조 영사를 한국 공관의 김동조 총영사로, 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관의 김용태 총영사를 김용태 영사로 정정합니다.

이 모 저 모

'승리의 정상' 활동 참가자들 쿠릴 화산 정복

일주일 안 되는 기간에 '승리의 정상' 활동 참가자들이 이투루프의 화산 두 곳과 쿠나쉬르의 화산 한 곳을 정복했다. 탐험대는 각 정상에서 승리의 깃발을 펼쳤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 탐험대는 주두마 의원 알렉산드르 볼로트니코브, <아드레날린> 사할린 클럽의 회장 니나 카소와, <아드레날린 관광> 여행사의 사장 세르게이 와실렌코를 비롯해 9명으로 구성되었다.

주두마 의원 대표로 참가한 알렉산드르 볼로트니코브는 "이 행사는 기본적으로 2개의 취지를 갖고 있다. 하나는 향토관 우리의 변경지역을 아는 것이고, 둘은 애국심이란 소비에트 국민의 업적에 대한 기념을 보존한다는 데 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이투루프에 도착하기 전 사할린의 몇몇 산 정상을 정복했는데 크라스노브산, 주중양도시와 인접한 체호브산, 미출 봉우리, 로파틴산(티몹스코예 구역), 스파메르그산(홈스크 구역) 등 산의 조건과 난이도에 따라 그룹 구성원은 교체된다. 예를 들어, 1609미터의 로파틴산을 등산 애호가들 75명이 동시에 정복했다.

이투루프의 가장 높은 지점인 스토카프 화산은 이보다 약간 높은 1634미터로 등반 코스의 난이도가 더 높다. 이 화산을 정복하기 전에 참가자들은 복단 흐멜니츠키산에 올랐다. 이후 그룹은 쿠나쉬르로 이동했다.

이들의 목표지는 짜짜화산이었다. 날씨가 어느 정도 호전되어 그룹은 계획한 것보다 하루 늦게 도착했다.

이 활동은 승전 7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올 초부터 출발했다고 .

활동은 사할린주두마와 주관광청의 지원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산 정상 정복자들의 과제는 사할린 주내 18개 지방자치에 위치한 모든 높은 산 정상을 오르는 것이다. 이 활동은 6월15일 크라스노브산 등반으로 시작되었다.

참가자들이 «Вершины Победы»를 정복하고 쿠릴의 화산 정복

Меньше чем за неделю участники акции «Вершины Победы» покорили два вулкана на Итурупе и один — на Кунашире. На каждой вершине экспедиция разворачивала флаг Победы.

Как рассказали организаторы, в составе группы было 9 человек, в том числе депутат областного парламента Александр Болотников, руководитель сахалинского клуба «Адреналин» Нина Кассова и директор компании «Адреналин-тур» Сергей Василенко.

— Мероприятие имеет две основные цели: краеведческую — познание родного края и патриотическую — сохранение памяти о подвиге советского народа, — рассказал Болотников. — До приезда на Итуруп мы покорили несколько сахалинских вершин. Это гора Краснова, пик Чехова и пик Мицуля вблизи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гору Лопатина (Тымовский район), гору Спамберг в Холмском районе.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условий и сложности восхождения состав группы постоянно меняется. В частности, гору Лопатина высотой 1609 метров покорили одновременно 75 энтузиастов. Высшая точка Итурупа, вулкан Стокап немногим выше

ее — 1634 метра, однако степень сложности восхождения здесь на порядок больше. Перед его штурмом участники акции поднимались на Богдана Хмельницкого.

Далее группа отправилась на Кунашир. Их целью стал вулкан Тятя. Погода внесла небольшие коррективы и на соседний остров группа прибыла с опозданием на сутки.

Напомним, что акция, посвященная 75-летию Победы, стартовала в начале текущего года. Она проводится при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туризму. Задача покорителей вершин — взойти на все высшие точки, расположенные в 18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островного края. Она началась 15 июня восхождением на гору Краснова.

독일과 미국을 때료시킨 16 세의 러시아 피아니스트, 사할린에서 카미유 생상의 곡 연주

러시아의 유명 피아니스트 예바 게보르간(16세)이 12월 초 사할린을 방문한다. 프랑스의 작곡가 카미유 생상(Charles-Camille Saint-Saens 1835-1921)의 오케스트라와 피아노 협주곡 2번을 공연하기 위해서다. 클래식 음악 애호가들도 이 작품은 사할린에서 음악회로 들어본 적이 없는 곡이다. 예바 게보르간은 사할린에 고급 포르테피아노를 갖춘 유즈노사할린스크 <로지나>문화회관에서 시민들에게 연주할 예정이다. 12월 5일에는 프랑스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지휘자인 카미유 생상의 교향곡을 사할린의 관객들에게 선사하고 6일에는 일반 대중을 위해 노르웨이의 작곡가 에드바드 그리그(Edvard Hagerup Grieg 1843-1907)의 널리 알려진 피아노곡을 연주할 계획이다.

(8면에 계속)

새고려신문 창간 70주년 문예콩쿠르

학생 부문 우수상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동양김나지아 학생 김현아 (14세)

시상 소감

처음 글짓기 공모에 참여해서 많이 떨렸지만 우수함을 인정받은 걸 알았을 때는 많이 놀랐었습니다. 제가 우수할 수 있었던 걸 기쁘게 생각하고 제 옆에서 응원해주고 도와주던 사람들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할머니께서는 한국에 살고 계셔서 할머니를 보러 자주 한국에 놀러가곤 했습니다. 할머니 아파트 옆에는 한 유치원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그 유치원 원장님과 친해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 갈 때마다 원장 선생님을 도와 유치원에 자주 갔었습니다.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며 재미있게 놀았었습니다. 아마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저는 한국 드라마와 K-pop 노래를 자주 즐겨 듣습니다. 친구들과 즐겁게 소통하며 여러 가지 노래나 드라마를 추천받는 등 꽤 좋아합니다.

동양김나지움에서도 한국어를 배우면서 여러 가지 문법과 단어를 배웠습니다.

요즘은 사할린 한국 교육원에 다니면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모두 잘 가르쳐 주시고 같은 반 사람들도 좋은 분들이셔서 한국어 수업을 듣는 게 즐겁습니다.

김현아 학생은 새고려신문 70주년 기념 글짓기대회 학생 부문에서 우수상을 받아 부상으로 한국에서 사할린 학생들을 위한 한국 언어 및 문화 연수캠프 참여권을 받고 2주간 경희대학교의 연수에 참가했다. 이 연수에서도 그는 훌륭한 한국어실력을 발휘했으며 최우등을 했다는 소식을 본사가 접했다.

연수 소감

비행기를 타고 간 경희대학교는 처음에 많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져 갔습니다. 저희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셨던 선생님들은 모두 따뜻하시고 잘 대해 주셔서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수업 시간에도 지루하기는 커녕 재미있게 이야기해 주셔서 더욱더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 수업 덕분에 제가 몰랐던 여러 가지 문법과 단어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경희대학교에 있는 동안 많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경희대학교를 다녀오면서 정말 소중한 경험들과 추억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다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좋겠습니다.

한국이 좋아요

김현아

저는 한국을 러시아만큼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처음 한국의 대해 알게 된 계기는 바로 친구가 들려준 케이-팝 노래 때문입니다. 제 친구는 케이팝에 열성팬입니다.어쩌다가 한 번 노래를 듣고 폭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다른 비슷한 노래를 찾다가 케이팝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케이팝에서 패션에 대한 관심으로, 그 다음 한국에 대한 문화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독특합니다. 약 오천 년 전 한반도에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는데 이것이 바로 한국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고조선 이후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 시대가 있었습니다. 1392년, 이 시대에 한국의 고유한 문자인 한글이 만들어졌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한글로 쓰여진 문학 작품이 많이 나왔으며 판소리, 탈춤 등의 서민 문화가 발달했었지요. 조선 왕조는 1910년 일본의 침략으로 무너지고 이후 36년간 한국 민족은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1945년 독립 이후 동서 간 냉전의 결과로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었습니다.

1950년에는 북한이 남한을 침략하여 3년 간 6.25 전쟁을 겪기도 했습니다. 남한은 70년대 이후 경제가 크게 발달하였고 1988년에는 올림픽 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미 한 번 한국에 가 봤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중에 저는 한 친구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니키타 였습니다. 저희는 비행기에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한국은 정말 현대적이고 깨끗한 나라입니다. 처음으로 우린 서울로 가봤습니다. 길거리를 보면 사람들은 제각각 자기 일을 하며 바쁘게 돌아다니고, 버스킹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역동적인 느낌이 나서 좋았습니다. 처음으로 가봤던 곳은 바로 한식 식당이었습니다. 메뉴에는 여러가지 음식이 있었지만, 모두 제가 모르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점원의 추천으로 삼계탕을 먹어보았습니다. 삼계탕 안에는 닭에 인삼, 대추, 마늘 등이 있었습니다. 처음 먹어본 맛이었지만 나쁘지 않은 맛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나서 집에서 자주 만듭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착합니다. 곤란한 상황이 되면 기꺼이 손을 내밀어 도와줍니다. 제가 모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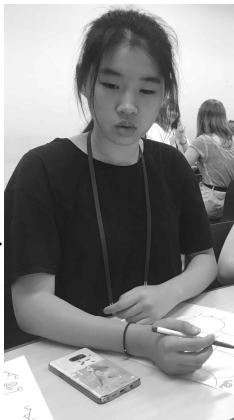
는 것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화를 내기보다 먼저 제가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친절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안부를 물으며 시시각각 제 인생에 관심을 갖습니다.

며칠 후, 우린 먼저 롯데월드 어드벤처로 가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먼저 가고 싶었던 곳이었으니까요! 그곳에는 어른, 아이 모두 남녀 구분할 것 없이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여러가지 놀이기구를 타고 밥을 먹으며 즐겁게 놀았습니다. 특히 인상 깊게 남았던 것은 바로 한 퍼레이드인데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주제로 여러가지 캐릭터들이 나와 이야기를 보여줬던 공연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기억나는 것은 바로 2013 여수 엑스포입니다. 여수 세계박람회는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주제로 100여 개국이 참가하여 각 나라의 해양사업에 대한 비전과 미래를 전시하였습니다. 주말에 가서 그런지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돌아보면서 세계여행을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족관도 다녀오고 해양생물관에도 갔습니다. 모든 게 정말로 신기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해양생물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인류는 얼마나 많은 걸 알면서 얼마나 많은걸 모르고 있는지, 하지만 무엇보다 신기했던 건 바로 빅오쇼(Big-O show) 였었는데요. 빅오쇼는 박람회장 한가운데 우뚝 솟은 거대한 원형 구조물인 빅오와 분수, 레이저 투사, 음향등을 보여주었던 공연입니다. 밤늦게 보여주어 더욱더 빛이 나서 유독 기억이 났던 공연이었습니다.

한국에는 저의 증조 할머니가 살고 계십니다. 저는 오랜만에 할머니를 뵙기 위해 친안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우리를 즐겁게 맞이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온 복숭아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문득 저는 증조 할머니의 젊은 시절에 대해 궁금했습니다. 제가 물어보자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증조 할머니의 학창시절 사진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매우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곳으로 가보고, 많은 걸 체험하고, 맛있는 걸 많이 먹어보았습니다. 하루 하루가 정말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 번 가보고 싶네요.



<극복>청소년장애인 재활센터, 가을 박람회 개최

지난 27일(금) <프레오돌레니예(극복)청소년 장애인 재활센터가 박람회를 열었다. 학생들과 학부모, 직원들이 손수 만든 제품들, 자신이 키운 채소, 다양한 공연, 놀이와 오락 등 명절 분위기로 가득했다.



이날 판매된 기금은 장애아들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된다.

<극복>청소년장애인 재활센터 채동춘(알비나 블라지미롭나) 관장은 "우리는 해마다 이런 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학부모와 직원들은 미리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이런 행사는 한 해의 결과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16년 동안 이 장애인 재활센터는 루고위에 작은 건물에 위치해 있다가 2018년 3월 중순에 유즈노사할린스크 도심(피즈쿨투르나야 거리 46-아)에 새로 개건된 큰 건물로 이전했다.

날씨 좋은 가을날 박람회 참가자들은 센터의 큰 마당에서 큰 즐거움을 나눴다.

(이예식 기자 취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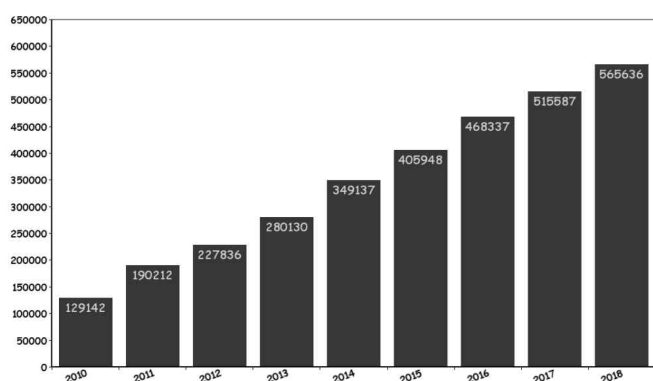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Зарубежные этнические корейцы полюбили визу F-4

25 сентября на местных новостных сайтах появились немного странноватые сообщения по поводу того, сколько сейчас в Корею выдается виз F-4. Напомним, что это специальная виза для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которая позволяет им фактически постоянно здесь жить и устраиваться на работу, хоть и не на любую. В стародавние времена такие визы выдавали только корейцам из развитых стран, чтобы в Южную Корею не могли приезжать «бедные родственники» из Китая и постсоветских стран, но в 2001 году такая хитромудрая практика была справедливо признана неконституционной, и семь лет спустя первые визы F-4 смогли получить китайские корейцы, к которым вскоре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и русскоязычные корё-сарам.

Теперь по поводу новостных странностей. Например, информационное агентство Йонхап в своей заметке от 25 сентября написало о «резком» увеличении выдачи виз F-4 в период с 2016 по 2018 год с 468 тысяч до почти 566 тысяч. При этом агентство сослалось на данные, истребованные депутатом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Ли Сокхёном (이석현, 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партия) от Министерства юстиции в ходе парламентского аудита. И далее в новостях делаются предположения откуда взялся такой «резкий скачок». Авторы предположений приходят к выводу, что всё дело, наверное, в новых правилах, которые позволяют обладателям (точнее, обладательницам) виз F-4 устраиваться на работу нянями, присматривать за детьми.

Странность этой информации и выводов из неё в том, что, во-первых, данные о выдаче виз F-4 вовсе не секретны. Чтобы их узнать, никакого парламентского аудита не нужно, всё уже и так опубликовано в регулярных статистических отчётах иммиграционной службы и имеется, в том числе, в интернете. То есть нашему депутату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выдали не какой-то «инсайд», а распечатку свежего буклета с данными за три последних года. Но в старых буклетах, в интернете, есть данные и за предыдущие годы, на основании которых можно было бы сделать более осмысленный анализ. Журналу КИМ без особого труда удалось эти данные собрать, и вы можете их увидеть на графике. На нём указано число этнических ко-



рейцев, получавших визы F-4, начиная с 2010 года.

Из этого графика следует, что ничего сверхъестественного с визами F-4 в 2017–2018 годах не произошло. Их выдача непрерывно росла и раньше, причём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стала расти даже чуть медленнее. Например, показатель 2010 года (129 тыс. виз) удвоился к 2013 году, то есть на такое удвоение потребовалось три года, а вот следующее удвоение заняло уже 5 лет. Наибольшее увеличение наблюдалось в 2014 (+69 тыс. виз), 2016 (+62 тыс.) и 2011 (+61 тыс.) годах, а вот в 2017–2018 гг. увеличение было, что называется, в пределах нормы.

Тем не менее, кое-что интересное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произошло. При том что общее число получателей виз F-4 с 2016-го по 2018-й годы увеличилось на 20,8 %, в случае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из Казахстана это увеличение составило целых 85,8 %.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тоже активничали: в 2018 году они получили на 29,1% больше виз F-4, чем двумя годами ранее.

Есть страшное подозрение, что вновь прибывшие в Корею казахстанцы и россияне вряд ли все как один устроились в местные семьи нянечками. То есть не стоит искать причины наблюдаемого «загадочного феномена» в каких-либо изменениях в корейском визовом режиме. Скорее всего, активное стремление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и России именно сейчас приехать на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больше связано — давайте политкорректно скажем — с некоторыми обстоятельствами их жизни в своих собственных странах.

Большинство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получивших в 2018 году F-4, прибыли из Китая — это 392 тысячи человек из 566 тысяч, или 69 %.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шли жители США (90 тыс.), где сейчас сформировалась крупнейшая в мире зарубежная корейская община из 2,5 млн человек. На третьем месте были канадские корейцы (28 тыс.), а за ними — российские (21 тыс.) и казахстанские (3,5 тыс.).

(Журнал КИМ, 26 сентября 2019 г.)

К 80-летию насильственной мобилизации корейцев на Сахалин

Вопросы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обсудили в Москве и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21–23 сентября 2019 г. в Москве и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Меж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Обществ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Фондо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был организован Исторический семинар «К 80-летию начала насильственной трудовой мобилизации корейцев с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на Сахалин». Семинар, приуроченный к данной памятной дате, является уникальным событием в России, поднимающим важнейшие вопросы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Организаторы провели огромную работу, чтобы на высоком научном уровне провести обсуждение этих вопросов и донести информацию до максимального количества людей в Москве и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На семинаре выступили четыре докладчика — двое из России, двое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се они имеют существенный опыт изучения и исследования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зарекомендовали себя как специалисты высокого уровня.

Первый докладчик — Дин Юлия Ивановна, кандидат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старший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известный исследователь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Ее доклад «Политик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о отношению к сахалинским корейцам: взгляд из Сахалина» был посвящен эволюции процесса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послевоенных проблем корейцев, роли в этом процессе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ы —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Докладчик Пак Мисук, профессор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мультикультурного слияния при Университете Инха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выступила с докладом «Значение иммиграции и оседлости (ПМЖ) в жизни сахалинских репатриантов». Ее выступ-

вление базируется на таком важном источнике в изучен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как интервью и воспоминания корейцев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которые по программе репатриации переехали в Корею. Сейчас важно узнать, насколько эта программа прошла успешно и какие перспективы могут быть открыты в связи с ней.

Известная на Сахалине южнокорейская исследовательница Пак Бонсу, имеющая степень доктора педагогических наук и являющаяся директором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Диаспора» и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корёин г. Инчхона, выступала с докладом «Изучение восприятия вопроса «возвращения» потомков сквозь призму жизн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ажные вопросы, связанные с репатриацией, позицией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инятием специ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ах, были заданы Пак Бонсу, а ее ответы вызвали оживленную дискуссию.

Последним докладчиком выступил Ким Бок Кон (Виктор Михайлович), проживающий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и являющийся председателем Фонда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 заместителем председателя 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Его доклад «80-летняя истор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 вопросы репатриац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торого поколения» вызвал наиболее бурное обсуждение и множество вопросов со стороны слушателей. Виктор Михайлович является общепризнанным специалистом по юридическим проблемам истории корейцев, имеет важный опыт выигранных судебных дел по вопросам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гражданства, активно выступает за репатриацию второго и третьего поколения, поднимает вопросы

невозвращенных вкладов корейцев в японские банки.

Важными в докладе Виктора Михайловича (на этом был сделан акцент ведущим московского семинара) были заключительные предложения — на основании ст. 2 п. 2 Конституц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изнать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за брошенных на чужбине своих граждан; на основании ст. 29 Конституц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отребовать компенсации за нанесенный ущерб сахалинским корейцам в вопросе невыполнения репатриации по списку Пак Нохагна; объединить все региональные и местные обществен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округ Меж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Обществ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г. Москва) и совместными усилиями продвинуть принятие специального закон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о оказанию помощи сахалинским корейцам в парламенте 21 созыва 2020–2024 гг.; в честь 75-летия оконча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в 2020 г. провести в Москве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бщественные слушания по проблеме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 участием МИДа России, послов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Японии 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МИ 15 августа 2020 г. Данные предложения вызвали активное обсуждение и бурную поддержку присутствующих участников.

Помимо докладчиков и слушателей на семинаре присутствовали и высокие гости — Генеральный консул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России Ким Дон Джо, второй секретарь посо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им Да Е, президент Московск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граждан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ак Хен Тэк, директор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 газеты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член Союза журналистов России Ким Георгий Алексеевич, члены «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Москве и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ученые-востоковеды, журналисты и др.

Хотелось бы отметить еще раз огромную работу, проведенную Меж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Обществ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х усилия в деле сохранения исторической памяти и разрешения важнейших вопросов, волнующих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Надеемся, что данн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продолжится, а общественное движение добьется значимых результатов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м уровне.

(Наш корр.)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Начин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20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ое полугодие—570 руб. 90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В День национальных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РК в Тэгу показали истребители пятого поколения F-35A

1 октября на военно-воздушной базе в Тэгу состоялась официальная церемония по случаю Дня национальных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В ходе мероприятия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осмотрел первый отечественный вертолёт Surion и другие образцы боевой техники. Кроме того, состоялся демонстрационный полёт четырёх истребителей F-15K, вручение наград и показ торжественных видео. Впервые публике были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ны четыре истребителя пятого поколения F-35A, принимаемые на вооружение. Помимо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в церемонии участвовали министр обороны Чон Гён Ду, командующие сухопутными, военно-морскими и военно-воздушными силами РК, школьники, граждане страны. Выступая на церемонии, президент Мун Чжэ Ин сказал, что национальные вооружённые силы обеспечат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безопасности, который никто не сможет игнорировать. Это создаст фундамент для мира и процветания.

РК продолжит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WFP по предоставлению Северу гуманитарной помощи

План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К по предоставлению КНДР гуманитарной помощи в виде 50 тыс. тонн риса были отменены. Но, несмотря на это, рабочее соглашение между РК и Всемирной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ой (WFP) по этому вопросу продолжает действовать. Об этом 1 октября на встрече с журналистами сообщ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нистерства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Он заявил, что организация пока не получала официальных сообщений Севера по данной теме, но южно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намерена продолжа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WFP в поиске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итуации. Журналист задал вопрос, что будет, если Пхеньян так и не примет предлагаемую помощь. Представитель ведомства заявил, что в этом случае рабочее соглашение со Всемирной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ой будет завершено, 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либо выберет другого получателя этой помощи, либо полностью свернёт проект.

В Сеуле состоялся кинофестиваль для пожилых людей SISFF

С 25 по 29 сентября в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толице прошёл 12-й Сеульски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кинофестиваль для пожилых людей (SISFF). В рамках мероприятия состоялся бесплатный показ 90 фильмов, 31 из них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режиссёрами из 11 стран. В секции зарубежных короткометражных фильмов была представлена 61 картина из 15 стран. Открыл фестиваль фильм «Я мечтаю на другом языке» мексиканского режиссёра Эрнесто Контрераса. Организаторы подготовили также секцию для детей, мероприятие «Know-ing: все мы станем кинофильмом», посвящённое пожилым людям, открывающим для себя новый мир, «Зал славы SISFF», где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фильмы, отмеченные наградами на фестивале 2018 года,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Фестиваль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в Японии привлекает внимание

Несмотря на ухудшение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К и Японией культур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с участием обеих стран привлекают внимание. 28-29 сентября в парке Хибия в Токио состоялся южнокорейско-япон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фестиваль, который посетили 72 тыс. человек.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30 сентября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в Японии. Количество участников снизилось на 10 тыс. человек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ошлым годом, однако это второй показатель с 2009 года, когда начали проводить дан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дажи южнокорейской продукции на фестивале выросли на 15%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ошлым годом. Директор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Хван Сон Ун заявил, что на этот раз фестиваль проводился с большим размахом в связи с десятилетием мероприятия. Учитывая это, он отметил довольно высокий интерес японцев к фестивалю, несмотря на сложную ситуацию в отношениях двух стран.

В июле количество новорождённых достигло минимальной отметки

В июле количество новорождённых в РК упало до новой минимальной отметки за этот месяц. По данным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татистического управления, представленным 25 сентября, показатель составил 25.263 ребёнка. Это на 6,5% меньше, чем за тот же период прошлого года. Показатель сокращается в течение 44 месяцев подряд с декабря 2015 года. Смертность, между тем, сократилась на 3%, составив 23 тыс. человек. Количество браков снизилось на 4,5% до 19.180, а разводов увеличилось на 1,8% до 9,5 тыс.

(RKI)

В Пхеньяне идёт активно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овых гостиниц

Несмотря на серьезные международные санкции, в столице КНДР ведется активно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сразу нескольких крупных отелей, которые возводятся с учетом растущего 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потока. Как удалось лично убедиться корреспонденту "Российской газеты",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строительные работы идут в нескольких районах Пхеньяна, где, как следует из рекламных проспектов перед стройплощадками, возводятся гостиницы.

Как поясни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х структур КНДР, они фиксируют увеличение притока туристов из различных стран, но при этом доминируют группы из соседнего Китая. Новые гостиницы строятся с учетом увеличения количества посетителей. Кроме того, в Пхеньяне объективно назрела необходимость обновления нескольких уже существующих гостиниц, где обычно размещают иностранцев. Новые комплексы после их сдачи в эксплуатацию, скорее всего, возьмут на себя часть этого потока, тогда как некоторые старые отели будут ремонтировать.

"Потребнос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мощностей назрела, это очень хорошо ощущается именно сейчас.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сентября в Пхеньяне проходило сразу несколько круп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включая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естиваль, выставку промышленных товаров и другие. Одновременно сентябрь очень популярное среди туристов время из-за обычно приятной, теплой, но уже нежаркой погоды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В результате был большой приток гостей, возникли некоторые проблемы с их размещением. В итоге мы справились и решили все вопросы, но стало в очередной раз очевидно, что нужны новые отели", - пояснил на условиях анонимност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чиновник.

Ожидается, что часть из строящихся отелей в Пхеньяне будут введены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и начнут принимать гостей уже к лету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Запланировано возведение и новых комплексов. Объекты строятся в современном стиле и не лишены смелых архитектурных решений. Можно ожидать, что новые здания еще больше оживят ландшафт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столицы, которая сильно изменила свой облик за последние несколько лет.

Строящиеся гостиницы обычно представляют собой одно или несколько зданий высотой в 20-30 этажей. Судя по проектным планам, в них предусмотрен весь комплекс услуг, включая магазины, рекреационные зоны, фитнес-центры, бассейны и проче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НДР также подчеркнули, что они будут рады видеть у себя туристов из России. "Подавляющее большин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стов - китайцы, но мы были бы очень рады видеть россиян, к которым корейцы традиционно испытывают очень теплые чувства. Для гостей из РФ можно продумать самые разные туры и программы посещения как Пхеньяна, так и других городов и районов нашей страны", - подчеркнул собеседник "РГ".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появились сообщения о том, что власти Китая стали поощрять туризм в КНДР. Это стало следствием потепления в китайско-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ях. Между КНР и КНДР недавно были введены несколько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авиамаршрутов, которые обычно заполняются туристическими группами из разных регионов Поднебесной.

Олег Кирьянов
(Пхеньян – Сеул,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Материковские 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различия и сходства

Ким Герман, доктор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шестве, превратившись в полноправных граждан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дентичность и менталитет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можно утверждать, что в СНГ сформировались две субэтнические корейские диаспоры схожие и отличные друг от друга в идентичности и менталитете. Материковским и сахалинским корейцам, как диаспорам, присущи диаспоральная, этническая и национальная идентичность, которые отличаются друг от друга по многим параметрам, но несут в себе одно изначальное ядро - «этничность».

Прежде всего и материковские 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относят себя к одному корейскому этносу, утверждая, что «все мы корейцы, включая тех, кто живет на Юге и Севере Кореи и за пределам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Во-вторых, они отличают себя по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к гражданству, то есть по своему паспорту. И хотя корейцы в континентальной части России и на острове Сахалин имеют одинаковое граждан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ни имеют различия в диаспорном самосознании. На индивидуальном уровне приоритет из трех видов идентичности может быть разным, и в этом случае речь идет не о групповом (диаспорном) самосознании, а о личной самоидентификации.

Значение и роль структурных элементов этнического самосознания диаспоры меняютс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особенностей историко-полит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от уровня консолидации, специфики этнического окружения. У диаспор с долгой историей проживания за пределами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ы этно-различительные признаки смещаются в основном в обряды, обычаи, ритуалы. На самом деле, диаспоранты в полной мере ощущают иными, отличными от других именно в традиционной семейной обрядности, бытовой культуре и в дни древних народных праздников.

Менталитет материковских 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меет в основе общее историческое и социально-культурного развития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населявшего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Однако разница в исторической судьбе переселенцев на русский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в последней трети 19 века и тех, кто оказался на Карафуто в 30-40-3 годы 20-ого века положило начало дивергентным процессам в менталитете двух субэтнических групп.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олее 60 волонтеров помогают искать пропавших детей

На круглом столе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прошедшем 26 сентября, обсудили, как наиболее эффективно наладить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по поиску не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х. Участие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ня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федер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Арктики, а также Национального мониторингового центра помощи пропавшим и пострадавшим детям.

По всей России сегодня работают 26 отделений этого центра. В 2018 году подразделение появилось 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на базе поисково-спасательного отряда «СОВА». Добровольцы базируются не тольк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о и Холмске, Корсакове, Долинске, Смирных, Тымовском, Охе.

— Чтобы спасти детей, необходимо тесно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властей, п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х органов,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Особая благодарность волонтерам, которые действуют по зову сердца. Каждая спасенная жизнь — это во многом ваша заслуга, — сказа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тон Зайцев.

Волонтеры помогают сотрудникам МВД, следственного комитета, МЧС в поиске пропавших людей. Добровольцы проходят специальное обучение, где осваивают разные навыки — от психологической помощи до ориентирования в лесу. Подготовку могут пройти все желающие.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проявляют студенты СахГУ, изучающие основы безопасности жизнедеятельности.

Как рассказал начальник уголовного розыска УМВД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авел Буданов, с января по август этого года поступило 372 заявления о пропаже не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х. 341 ребенок нашелся уже в течение суток. Из всех пропавших в этом году 259 детей ушли из семей, в том числе из приемных. 113 не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х самовольно покинули детские дома, учреждения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й реабилитации, общежитий. Больше половины этих случаев произошли повторно.

Исполнительный директор Национального мониторингового центра помощи пропавшим и пострадавшим детям Екатерина Мизулина отметила: в России проблема пропажи не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х стоит довольно остро. Чаще всего это происходит из-за ненадлежащего контроля в социаль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конфликтах в семье, неблагоприятных условий жизни.

— За 2018 год в России пропали и были объявлены в федеральный розыск 6440 ребят. К счастью, большинство из них нашлись. Участились случаи ухода из дома и социа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ребят более младшего возраста — 7, 8, 9 лет, — сказала Екатерина Мизулина. — На Сахалине ситуация выглядит лучше, чем во многих других регионах России. Чтобы предотвратить случаи пропажи детей, нужно еще больше усилить профилактическую работу, активно привлекать психологов и социальных работников.

В некоторых случаях не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е становятся жертвами или попадают в чрезвычайные ситуации. В целях профилактики этого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ышла серия комиксов и мультимедийных роликов, где рассказывается о правилах безопасного поведения. С их помощью ребята в развлекательной форме узнают, как не попасть в беду во дворе или по пути в школу, как важно говорить «нет», как вести себя с незнакомыми людьми. Отдельн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ется безопасности не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х в Интернете.

Во дворах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ачали устанавливать камеры видеонаблюдения

Всего в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е до конца 2019 года появятся 1300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ых систем. С их помощью будут отслеживать нарушителей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орядка и автолюбителей, которые паркуются в неполюженных местах. Эту работу региональное министерство цифрового развития и связи проводит совместно с ПАО «Ростелеком».

— Во дворах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уже установили около 300 камер видеонаблюдения. У системы огромный потенциал. Она будет незаменимым помощником дежурных служб и всех жителей города. Во дворах станет комфортнее и безопаснее. Информация о правонарушителях в онлайн-режиме начнет попадать в полицию. Кроме того, опыт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остепенно внедрим во все муниципалитеты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 отметил областной министр цифрового развития и связи Дмитрий Мажарин.

Ранее более 300 камер видеонаблюдения установили в общественных местах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Работа по оснащению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ы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ведется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Безопасный город». Ее реализуют на островах с 2014 года. Она позволяет своевременно информировать силовые структуры и городские службы о происходящем в городе. Также «Безопасный город» помогает в работе единой дежурно-диспетчерской службы.

— За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на улицах стало заметно спокойнее. Чувствуется, что мы находимся под защитой. Это очень здорово. Отдельное «спасибо» за камеры видеонаблюдения во дворах. Например, в моем дворе молодые люди часто курят и распивают спиртные напитки прямо на детской площадке. Когда у нас устано-

вят видеонаблюдение, они побоятся это делать, — рассказала жительница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Светлана Кузьмина.

Еще одна важная составляющая аппаратно-программного комплекса «Безопасный город» — система распознавания лиц. Ей оснащены аэропорты, вокзалы и морские гаван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борудование в автоматическом режиме отслеживает перемещение людей, которые находятся в розыске. В будущем такую технику разместят в торговых центрах и отделениях МФЦ.

Также на островах модернизируют систему «112». В рамках этой работы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уже установили 4 терминала экстренных служб. Сейчас они находятся в тестовом режиме. Аппараты позволят каждому сахалинцу в случае необходимости оперативно связаться с полицией, скорой помощью и МЧС.

— Принцип работы такой — после нажатия кнопки сигнал поступает в центр обработки вызовов системы «112». Далее необходимо представиться и сообщить информацию о случившемся. После этого к месту отправятся находящиеся поблизости экстренные службы. Подобные системы уже хорошо зарекомендовали себя во многих регионах России, — рассказала руководи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гражданской обороны, защиты от чрезвычайных ситуаций и пожар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Анна Михеева.

До конца года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установят еще более 40 терминалов экстренных служб.

Более 80 сахалинских некоммерче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готовятся бороться за президентские гранты

В конкурсе могу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некоммерческие не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НКО) и получить средства на реализацию своих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х проектов. Прием заявок будет проводиться с 14 октября по 25 ноября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президентскиегранты.рф.

Конкурс — это отличная возможность для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с активной гражданской позицией представить свои инициативы и получить финансовую поддержку на воплощение их в жизнь.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83 островных НКО изъявили желание побороться за гранты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Конкурсный отбор проводится по следующим направлениям: социальная поддержка; охрана здоровья; поддержка семьи, материнства, отцовства и детства; молодежные проекты; проекты в области науки и искусства; сохранение исторической памяти; защита прав и свобод человека; охрана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укрепление межнационального и межрелигиозного согласия; развитие общественной дипломатии и институтов гражданского общества.

Участниками конкурса не могут быть потребительские кооперативы, политические партии, торгово-промышленные и адвокатские палаты, микрофинансовые организации. Кроме того, на победу не могут претендовать те НКО, которые не по назначению использовали средства предыдущих грантов или предоставили на конкурс недостоверную информацию.

В этом году уже состоялось два конкурса президентских грантов. Тысячи проектов прислали НКО из всех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38 заявок подали обществен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6 инициатив уже были признаны лучшими и получили грантовую поддержку — более 7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К примеру, Южно-Курильский «Клуб молодежных идей» предложил проект «ЗВУК», что значит «Захватывающие виды удивительного Кунашира». С помощью гранта активисты собираются обустроить три новых туристических маршрута. А учебный центр «Актив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проведет областной чемпионат по робототехнике, где участие примут как дошколята, так и старшеклассники. Также благодаря президентским грантам выйдет документальный фильм «Тайна мыса Анастасия», появится информационно-краеведческий центр в Невельске. Тымовские и нogliкские школьники смогут отправиться в краеведческую экспедицию по реке Тимь, а поисковики создадут экспозицию о военной авиации в музейно-мемориальном комплексе «Победа».

Условия и порядок проведения конкурса, а также требования к участникам размещены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президентскиегранты.рф. Кроме того, информацию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по телефону 8(495)150-42-22 и по электронной почте: office@pgrants.ru. А такж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ресурсном центре по телефону: 8 (4242) 42-42-30 (Коржова Ирина Владимировна).

В Корсакове прошел фестиваль физкультуры и спорта среди инвалидов

Островитяне соревновались в дартсе, настольном теннисе, бросании баскетбольного мяча в корзину и игре в шашки. Участие можно было принять в любых дисциплинах на выбор.

— Эти соревнования — подтверждение тому, что у спорта нет границ. И это здорово. Люди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наравне со всеми могут вести полноценный образ жизни — ходить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и культурные учреждения, принимать участие в массовых стартах. Поддерживать такие мероприятия просто необходимо,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дготовку к состязаниям спортсмены начали за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до соревнований. В спортивно-оздоровительном комплексе «Флагман» открыта группа адаптивной физкультуры.

— Я занимаюсь со своими воспитанниками уже второй год, — рассказывает тренер-преподаватель по адаптивной физкультуре Нина Таксанова. — Мы регулярно участвуем в различны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А на последней областной спартакиаде наши спортсмены заняли третье место. Это для нас очень ценно.

В чемпионат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26 человек в возрасте от 20 до 58 лет. Начинаям спортсменам помогали более опытные. А настоящая борьба развернулась между победителями прошлых лет. Так, Сергей Комароми уже не раз занимал призовые места на подоб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 Последние успехи — в бывшем пионерском лагере «Восток» были соревнования, я занял два первых места по дартсу. Здесь тоже намерен стать победителем. Спорт — это моя страсть, — отметил Сергей Комароми.

Победителей первенства наградили медалями и грамотами. Скоро спортсмены начнут подготовку к областной спартакиаде инвалидов, которая состоится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Отметим, сегодня более тысячи сахалинцев с нарушениями здоровья занимаются различными видами спорта: легкой атлетикой, лыжными гонками, каратэ, плаванием, горными лыжами и сноубордом.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при спортивных школах функционирует 17 групп адаптивной физкультуры.

— Занятия спортом очень востребованы среди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Если в 2016 году в области было 9 адаптивных групп, то в этом — их 17. Одна из главных задач сегодня — создать региональный центр адаптивной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и спорта, — отметил министр спорта, туризма и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ргей Буренков.

Островные спортсмены с различными нарушениями здоровья достигают высоких результатов не только на региональном, но и на всероссийском уровне. В 2018 году Владимир Игушкин и Всеволод Щеглов вошли в тройку призеров на чемпионате России по горнолыжному спорту и сноуборду среди спортсменов с поражением опорно-двигательного аппарата. При этом Всеволод стал чемпионом страны в дисциплине бэнкет-слалом.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три сахалинских горнолыжника входят в основной состав паралимпийской сборной России.

Хорошим стимулом для спортсменов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физически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являются региональные меры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Чемпионам и призерам спартакиад в дисциплинах, входящих в программы Олимпийских, Паралимпийских, Сурдлимпийских игр,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единовременные выплаты. Спортсмены, которые добились высоких результатов и вошли в состав сборной России, получают ежемесячную стипендию.

Моцареллу и буррату теперь производят на Сахалине

Свои мощности расширила единственная в области частная сыроварня. Всего предприятие выпускает около 70 сортов молочного продукта — с плесенью, красный ледстер, эменталь, испанский маон, черный белпер кнолле с чесноком и перцем. Запуск производства стал возможен благодаря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е региональных властей.

Несколько лет жительница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Мария Федотова готовила сыр в качестве хобби — для себя и знакомых. Однако популярность продукта так быстро росла, что информация о нем разошлась далеко за пределы дружеского круга. Узнав о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е бизнесменов на Сахалине, островитянка решил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ть ИП. Открыла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й цех в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е и получила субсидию из регион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на возмещение затрат в размере 150 тысяч рублей.

Каждый сорт сыра Мария Федотова готовит по традиционным рецептам и технологиям. Причем использует натуральное свежее молоко от местных поставщиков. Приобрести готовую продукцию можно в фирменной торговой точке «Сырный дом».

— На нашем предприятии всего два сотрудника — я и моя помощница. Но, признаюсь, технологом и продавцом мне необходимы. Хочу увеличить производство, а без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рук — этого не сделать, — рассказала Мария Федотова.

С расширением мощностей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 сможет претендовать ещё на ряд субсидий. Так,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действует свыше 40 различных механизмов помощи, которые пользуются спросом у бизнесменов. Это не только консультации, но и прямая финансовая поддержка в виде субсидий и грантов. Как рассказали в региональном министерстве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на Сахалине возмещают затраты на участие в выставочно-ярмароч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аренду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помещений, приобретение оборудования и проценты по кредитам.

Отметим, в этом году в областном бюджете региона на поддержку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бизнеса заложено более 2,7 млрд рублей.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2019 세계한인회장대회' 본격 개막

전 세계 한인사회 리더 400여 명 모여 동포사회 발전 논의



2일 오후, 전 세계 80여 개국, 400여 명의 한인회장들이 모여 동포사회 발전을 논의하는 '2019 세계한인회장대회'가 서울 그랜드 워커히 호텔에서 개막했다.

개회식은 법륜 스님의 기조강연과 대회 공동의장인 강인희 러시아·CIS 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의 환영사, 이태호 외교부 2차관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축사 등이 진행되었다.

이번 대회는 4일까지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주년, 재외동포가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주제 아래 한인회 운영 사례 발표, 지역별 현안토론, 정부와의

대화 등 동포사회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와 단체 간 교류마당, 한인회장의 밤 등 상호 교류의 장인 네트워크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또한 올해 처음 시도되는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 시간'(10.4)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재외동포사회의 역할에 대한 열띤 발표와 토론이 기대된다.

5일에는 제13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과 함께 재외동포 유공자에 대한 정부훈포상이 있을 예정이다.

한우성 이사장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모국과 함께 재외동포사회가 다음세대를 위한 새로운 100년을 이끌어 나가는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어머니 / 박경리

어머니 생전에 불효막심했던 나는
사별 후 삼십여 년
꿈 속에서 어머니를 찾아 헤메었다

고향 옛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서울 살았을 때의 동네를 찾아가기도 하고
피난 가서 하룻밤을 묵었던
관악산 절간을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전혀 알지 못할 곳을
애타게 찾아 헤메기도 했다

언제나 그 꿈길은
황량하고 삭막하고 아득했다
그러나 한 번도 어머니를 만난 적이 없다

꿈에서 깨면
아아 어머니는 돌아가셨지
그 사실이 얼마나 절실한지
마치 생살이 찢겨나가는 듯했다

불효막심했던 나의 회한
불효막심의 형벌로써
이렇게 나를 사로잡아 놓아주지도 않고
꿈을 꾸게 하나 보다

엄마, 밤! 다짜고짜 이렇게 얘기만
해도 어머니는 콩나물국을 데우시거
나, 반찬 하나를 더 만들어 주시려고,
"조금만 기다려라, 이 놈아!" 이렇게
저를 키우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이 모든 게 당연한 권리인 줄 착각하
며 살았습니다. 좀 더 커서는, "엄마,
돈이 좀 필요한데요!" 이렇게 부탁도

자주 드렸네요. 칼
만 안 들었지, 날강
도가 따로 없었던
거죠. 돈 한 톨 벌
어보지 않은 놈이
결혼은 또 일찍 했
습니다. 대학 시절
결혼했으니 정말
대체없이 산 인생
이 아닐까 종종 반
성하고 있습니다.

공부 좀 더 해 본답시고 유학도 떠나
봤고, 공부가 의외로 어렵다 보니 쉽
게 때려쳤습니다. 사업도 벌여봤습니
다. 홀로 눈물을 머금으며 정리도 해
봤지요. 그때는 세상이 또 왜 그렇게
원망스럽던지요. 그러던지 말던지 제
어머니는 제 곁에서 늘 제 건강만을
걱정해 주셨어요. 세상을 몹시 부정
적으로 마주할 뻔했습니다만, 어머님
덕에 따뜻한 시선을 놓지 않을 수 있
었습니다. 지난 추석 때에도 저는 어
머님께 야단을 맞았어요. 기분은 물
론 좋았습니다. '정정하시구나, 우리
엄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봄에
도 신세를 졌는데, 어찌다 이번 가을
역시 '토지문화관'의 집필실입니다. 박
경리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남긴
'시'를 음미하는 가을 밤! 이런저런 사
념들이 자꾸 머릿속을 헤맵니다. 어머
님께 잘 할게요!

허진원
2019년 9월 24일



Губернатор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ИНСТИТУТ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АЛИ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соци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Открывая дверь в театр живых традиций народа»
“전통에서 생의 기를 찾으려”

ЯРМАРКА МАСТЕРОВ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го искусства
Кореи на Сахалине

Приглашаем всех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12 октября 2019 г.
14:00–16:00**

Адрес: пр. Мира, 83 а,
Корей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актовый зал)

В программу входят мастер-классы:

- роспись на карточках: каллиграфия, корейский алфавит хангыль;
- роспись вееров с изображением корейских масок тхаль;
- блюда из традиционной бумаги ханджи;
- значки из традиционной бумаги ханджи;
- изготовление открыток из бумаги;
- флаг тхэгыкки своими руками;
- роспись по ткани;
- корейский национальный костюм ханбок;
- традиционные корейские инструменты;
- национальные игры.

Мастер-классы проводятся БЕСПЛАТНО.
Контактный адрес: sakhalin_k-pop@mail.ru.
Телефон. 42-40-87

Праздничная торговля:
национальные корейские сладости тток,
кимбап, чумокпап, браслеты
с традиционными узорами и др.

К★POP

ФЕСТИВАЛЬ

2019

11 октября 2019 г.

Время проведения: 18:00

Место проведения: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й пр., 33 (2-й этаж, большой зал)

Отборочный тур: 11 октября в 13:00–15:00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й пр., 33)

Заявки принимаются до 25 сентября
по адресу: sakhalin_k-pop@mail.ru

Вход свободный

Партнёры:
Молодёжная
ассоциация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동북아청소년협의회

Организаторы: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이번 연주회에 유즈노사할린스크 챔버 오케스트라와 함께 협연을 하게 된다.

예바 게보르간은 이미 14세까지 40개 콩쿠르에 참가해 최우수상들을 수상, 여러 나라의 콩쿠르에 참가해 심사위원들의 주목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가장 큰 성과는 미국 클리블랜드에서 개최된 대규모 밴 클라이번(Van Cliburn) 청소년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한 것이다. 예바의 수상 경력은 독일 뒤셀도르프 슈만국제콩쿠르에서 1등 수상,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피아노 패전> 콩쿠르에서 2등과 관객상 수상, '호도카기 인형' 18주년 TV 콩쿠르에서 중앙 음악학교의 특별상 수상 등, 그 외에 많은 상을 수상했다.

16-летняя российская пианистка, покорившая Германию и США, сыграет на Сахалине Сен-Санса

Известная российская пианистка, 16-летняя Ева Геворгян в начале декабря прилетит на Сахалин, чтобы впервые сыграть концерт №2 для фортепиано с оркестром Камиля Сен-Санса. Этого произведения любители классической музыки еще ни разу не слышали в живом исполнении на острове. Ева Геворгян выступи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м доме культуры "Родина", где находится лучший на Сахалине рояль. 5 декабря она подарит всем желающим концерт французского композитора,

пианиста, органиста, дирижера Сен-Санса, а 6 декабря в ее исполнении прозвучит фортепианный концерт более известного для широкой публики норвежца Эдварда Грига. Выступление будут сопровождать номер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го камерного оркестра.

Уже к 14 годам Ева Геворгян успела получить лауреатские звания на 40 конкурсах и продолжает завоевывать симпатии жюри в разных странах. В числе самых важных достижений — победа в крупнейшем юношеском конкурсе пианистов имени Вэна Клайберна, который проходит в США, в Кливленде. В копилке девушки также первая премия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онкурса имени Шумана в немецком Дюссельдорфе, вторая премия и приз зрительских симпатий на конкурсе Astana Piano Passion в Казахстане, специальный приз центральной музыкальной школы в 18-м телевизионном конкурсе "Щелкунчик" и прочие награды.

청년의회, 정치 활동을 원하는 사할린의 주민들을 부른다

사할린주 두마는 청년의회 구성원이 될 후보자들의 지원서를 접수한다.

필수 서류, 설문, 가입서 목록은 사할린주두마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청년의회는 청년 정책의 문제를 다루는 사할린주두마 소속 자문기구다.

이 기관의 목적은 법과 정치문화 분야에 국가 청년 정치 형성을 위해 청년들의 참여를 조성하는 데 있다. 주두마는 청년의회 후보자들을 접수하는 가운데 사할린 지역에서 살고 있는 18세-35세 러시아 연방 시민이면 청년의회 의원이 될 수 있다.

신청서는 이메일 duma@dumasakhalin.ru 또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체홉 거리 37번지에서 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은 11월 23일까지며 주두마 홍보실로 전화(:43-76-70)하여 문의할 수 있다.

Сахалинцев, желающих заниматься политикой, зовут в молодежный парламент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дума принимает заявки кандидатов в состав молодежного парламента. Список необходимых документов, анкету и подписной лист можно скачать на сайт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Напомним, что островной молодежный парламент является совещательным и консультативным органом пр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е по вопросам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Его цель — содействовать участию молодежи в формирован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в области правовой и полит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Областная дума объявляет прием заявок кандидатов в состав молодежного парламент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Членом молодежного парламента может быть гражданин РФ в возрасте с 18 до 35 лет включительно, проживающий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явки принимаются по электронной почте duma@dumasakhalin.ru или по адресу: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ица Чехова, 37.

Список необходимых документов, анкету и подписной лист можно скачать на сайт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Срок подачи заявок — до 23 ноября. Справки по телефону 43-76-70,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облдумы.

(사할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에서)

ЕДА.САХ.КОМ
СЕРВИС ЗАКАЗА ЕДЫ



Наш сервис объединяет
БОЛЕЕ 50 ЗАВЕДЕНИЙ



Мы передали
БОЛЕЕ 100 000 ЗАКАЗОВ



Сервисом пользуются
БОЛЕЕ 25 0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Помогут сделать выбор
БОЛЕЕ 5 000 ОТЗЫВОВ



ЗАСТРЯЛИ В ПРОБКЕ?

ПРОСТО НЕ УСПЕЛИ ПОЕСТЬ?

Ставь приложение
еда.сах.ком

ЗАГРУЗИТЕ НА
Google play

Загрузите в
App Store



РЕШИЛИ ПЕРЕКУСИТЬ
В ОФИСЕ?

ЛЕНЬ ГОТОВИТЬ?

Просто заходи на сайт
eda.sakh.com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СКИДКИ И АКЦИИ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ЛЮБОЙ ВАШ ЗАКАЗ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г. (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Н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